



기동연 | 고신대학원

## 1. 들어가는 말

1877년에 엘 아마르나(El Amarna)에서 한 여성 농부에 의해 가나안 도시 국가 왕들이 이집트 왕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된 지 약 130년의 세월이 흘렀다.<sup>1)</sup> 그 동안 엘 아마르나 편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이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엘 아마르나 편지 발견 초기에는 주로 엘 아마르나 편지의 하비루를 성경의 히브리인과 동일시 하면서 이 편지들이 가나안 정복 이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해되었다.<sup>2)</sup> 하

- 1) Stuart A. West, "The Habiru and the Hebrews: From a Social Class to an Ethnic Group," *Dor le Dor* 7 (1979): 101-107.
- 2) George Aaron Barton, "The Habiri of the El-Amarna Tablets and the Hebrew Conquest of Palestin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48 (1929): 144-148;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A History of Old Testament Israel*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102-108.

www.kci.go.kr

지만 벤노 랜드스버거(Benno Landsberger)가 하비루와 사.가즈를 도망자들이라고 제안한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엘 아마르나 편지의 하비루와 사.가즈를 도시의 소외 계층으로 구성된 무리들로서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과 전혀 다른 형태의 이스라엘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sup>3)</sup> 이들에 의하면 하비루와 사.가즈는 지배 세력으로부터 도망한 자들로서 주류 사회 밖에 살면서 지배 세력을 위협하는 강도들이거나 반역자들이었다.<sup>4)</sup> 그리고 엘 아마르나 편지의 하비루와 사.가즈는 자신들을 억압하던 도시 국가 왕들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였고, 용병이 되어 다른 도시 국가 왕들이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벌인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sup>5)</sup> 이러한 견해는 최근까지도 학자들의 논문과 저서들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sup>6)</sup> 하지만 사실상 엘 아마르나 편지의 하비루와 사.가즈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기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가나안 정복 이론으로 보든지 사회적 현상으로

- 
- 3) Moshe Greenberg, *The Hab/piru*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55), 70–76; E. F. Campbell, “The Amarna Letters and the Amarna Period,” *Biblical Archaeologist* 23 (1960): 2–22; George E. Mendenhall, *The Tenth Generation: The Origins of the Biblical Tradi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122–141; Norman K. Gottwald, *The Tribes of Yahweh: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Israel, 1250–1050 B.C.E.* (Maryknoll: Orbis, 1979), 1–916; Walter Brueggemann, “The Tribes of Yahweh: An Essay Review,”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8 (1980): 441–451; Norman K. Gottwald, “Two Models for the Origins of Ancient Israel: Social Revolution or Frontier Development,” in *The Quest for the Kingdom of God: Studies in Honor of George E. Mendenhall*, eds. H.B. Huffmon, F. A. Spina, A. R. W. Green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5–24. Walter Brueggemann, “Exodu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 ed. Leander E. Keck (Nashville: Abingdon, 1994), 695; Niels Peter Lemche, “Habiru, Hapiru,” i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6–10.
- 4) Norman K. Gottwald, “Two Models for the Origins of Ancient Israel: Social Revolution or Frontier Development,” 5–24.
- 5) James LaGrand, “Hebrews in the Tanak,” *Proceedings* 11 (1911): 1–8.
- 6) Trent C. Butler, *Joshua 1–12* (Grand Rapids: Zondervan, 2014), 132–157; Robert L. Hubbard, *Joshua* (Grand Rapids: Zondervan, 2009), 37–40; J. Gordon McConville and Stephen N. Williams, *Joshua* (Grand Rapids: Eerdmans, 2010), 3–8; 김영진, “구약성서 연구에 있어서 고대 근동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 9집 (2000년 10월): 259–288; 김지찬, “한국교회 설교의 근본적 문제점: QT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해석의 심리화-사회화와 적용의 정형화,” 『성경과 신학』 67권 (2013): 261–290.

보든지 간에 이들의 견해는 엘 아마르나 편지 내용의 전후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난 오해이다. 엘 아마르나 편지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하비루와 사.가즈는 어원적 의미의 강도나 도망자가 아니라 도시 국가 왕들이 자신들의 적대적 세력에게 사용한 비하적 표현이다. 이런 주장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일부 엘 아마르나 문서를 통해 제기되어 왔지만, 엘 아마르나 문서 전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sup>7)</sup> 그러므로 이 논문은 엘 아마르나 편지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서 하비루와 사.가즈의 정체와 활동을 재평가 하고자 한다. 엘 아마르나 편지가 발견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대 근동의 문서들에서 하비루와 사.가즈가 발견되었지만, 이 논문은 이 문서들을 제외하고 엘 아마르나 편지의 하비루와 사.가즈만 집중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 2. 엘 아마르나 서신의 하비루(Habiru)와 사.가즈(Sa.Gaz)

엘 아마르나 문서에서 하비루는 모두 9번 사용되었다. 예루살렘 왕 압디헤바가 이집트 왕에게 보낸 편지들 중에서 EA(엘 아마르나) 286, 287, 288, 289, 290에서만 하비루가 사용되었다.<sup>8)</sup> 하지만 휴고 윈클러(Hugo Winckler)가 엘 아마르나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사.가즈(Sa.Gaz 또는 가즈 Gaz)가 하비루와 동일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 표현을 동일시하면서 엘 아마르나 문서의 하비루의 사용빈도는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sup>9)</sup> 사.가즈 또는 가즈를 하비루와 동일시 할 경우 엘 아

7) Moshe Greenberg, *The Hab/iru*, 70-76; Nadav Naaman, "Habiru and Hebrews: The Transfer of a Social Term to the Literary Sphere," *JNES* 45 (1986): 271-288; Anson F. Rainey, "Shasu or Habiru: Who were the Early Israelites," *Biblical Archaeology Review* 34 (2008): 51-55.

8) James 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487-489.

9) Hugo Winckler, *Geschichte Israels in Einzeldarstellungen* (Leipzig: Pfeiffer, 1895), 18; Mary P. Gray, "The Habiru-Hebrew Problem in the light of the Source Material Available at Present," *Hebrew Union College Annual* 29 (1958): 139-140; William L. Moran, *The Amarna Letters*

마르나 편지들에서 이들 표현들은 약 125번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두 표현을 동일시 하면서 엘 아마르나 편지들의 하비루에 대한 연구는 급격하게 어원론적 접근 방식으로 기울게 된다. 하비루의 의미는 동사 아바르(אָבַר)의 개념들 중에서 어느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통과하다’의 개념을 가진 ‘유목민’을 나타낼 수 있고, 강을 ‘건너다’의 개념을 가진 ‘외국인,’ 또는 ‘강 건너에서 온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10)</sup> 하비루가 동사 아파르(אָפַר)에서 파생되었을 경우 ‘먼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도 이해되었고, ‘음식을 제공 받는 자’라는 의미로도 생각되었다.<sup>11)</sup> 사.가즈는 아카드어에서 차용된 수메르 표의 문자로서 살인자, 약탈자, 방랑자, 떠돌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2)</sup> 하비루와 사.가즈의 공통점은 정상 사회에 정착해 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대 문서들 중에서 두 표현을 동일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이 두 표현을 동일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자료는 없으며, 놀만 고트왈드(Norman K. Gottwald)는 둘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확실성이 없다고 말한다.<sup>13)</sup>

하비루와 사.가즈에 대한 어원론적 접근은 엘 아마르나 편지의 하비루와 사.가즈의 정체를 혼동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비루와

---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137ff. 메리 그레이는 라스 사므라(Ras Samra)에서 출토된 아카드어와 우가릿어로 기록된 세금 목록이 원클러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한다. 이 라스 사므라 세금 목록은 아카드어와 우가릿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카드어로 사.가즈(Sa.Gaz)로 표기된 대상이 우가릿어 표기에서는 하비루라고 되어 있다.

- 10) 김성, “첫 번째 “역사적” 출애굽: 출애굽의 연대 추정과 힉소스 추방,” 『구약 논단』 제 1집 (1995년 9월): 27-55; 정중호, “구약의 노비관과 조선 초기 천민사상,” 『구약논단』 제 19권 2호 통권 제 48집 (2013년 6월): 167-194.
- 11) Meredith G. Kline, “Ha-bi-ru: kin or foe of Israel? 1,”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9 (1956): 1-24; Niels Peter Lemche, “Habiru, Hapiru,” 6-10.
- 12) B. J. Beitzel, “Habiru,”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2, ed.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82), 586.
- 13) Norman K. Gottwald, *The Tribes of Yahweh: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Israel, 1250-1050 B.C.E.* (Maryknoll, N.Y.: Orbis Books, 1979), 401.

사.가즈가 유사한 성격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비루는 예루살렘 왕 압디헤바만 사용하였다. 반면에 사.가즈는 시리아-레바논과 가나안 지역의 도시 국가 왕들의 편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왜 압디헤바만 하비루를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어원론적 접근의 또 다른 문제는 시리아-레바논과 가나안 지역의 하비루와 사.가즈 현상을 모두 동일 현상으로 획일화 해 버렸고, 편지의 전후 내용을 통해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엘 아마르나 편지들의 본문 문맥과 편지들 상호 관계를 고려하면 하비루와 사.가즈는 어원의 의미인 살인자와 강도 그리고 도망자와 같은 사회적 소외 계층이 아니라 대부분 비하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 단락에서는 시리아-레바논과 가나안 지역에서 사용된 하비루와 사.가즈의 정체와 용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 3. 시리아-레바논의 사.가즈.

엘 아마르나 문서의 사.가즈와 하비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들을 지역에 따라 둘로 구분하여 살펴 보아야 한다: 1) 시리아-레바논 지역, 그리고 2) 가나안. 이 두 지역에서 언급된 사.가즈와 하비루는 각각 그 대상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먼저 시리아-레바논 지역에서 보낸 엘 아마르나 편지들에 등장하는 사.가즈를 살펴 보면 이 표현은 강도나 도망자들의 집단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적대적인 도시 국가 왕과 그의 군대에 대한 비하적인 욕설로 사용되었다.<sup>14)</sup>

---

14) George E. Mendenhall, *The Tenth Generation: The Origins of the Biblical Tradition*, 130-135; Walter Brueggemann, "Trajectories in Old Testament Literature and the Sociology of Ancient Israel," *JBL* 98 (1979): 161-185.

### 1) 적대적인 왕에게 비하적 표현으로 사용된 사.가즈.

시리아-레바논 지역에서 이집트 왕에게 보낸 엘 아마르나 편지들에서 사.가즈는 주로 아물루(Amurru)의 왕이었던 압디아실타 (Abdi-Ashirta)와 그의 아들 아지루(Aziru)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을 비하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시리아-레바논 지역에는 도시 국가들 상호간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고, 이 분쟁은 북쪽에 위치한 아물루의 왕 압디아실타와 그의 아들 아지루의 세력 확장 때문에 생겨났다. 이 두 부자는 시리아-레바논 남서쪽 해안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고,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구블라(Gubla) 또는 비블로스(Byblos)의 왕이었던 립합다(Rib-Hadda, 또는 Rib-Addi)였다. 립합다는 자신을 공격하는 압디아실타와 그의 아들 아지루를 비난하면서 세 가지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1) 종, 2) 개, 그리고 3) 사.가즈. 엘 아마르나 편지 79:45-47에서 립합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A 79:45-47 모든 땅이 압디아실타에게 병합될 것입니다. 그가, 그 개가 무엇인데 왕의 땅을 자신을 위해 취합니까?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립합다는 압디아실타를 개라고 비하하고 있다. 그리고 립합다는 EA 71:16-1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와 종을 함께 사용하면서 압디아실타를 비하하며 비난하기도 한다.

EA 71:16-18 압디아실타, 그 종과 개가 무엇이기에 왕의 땅을 자신을 위해 취합니까?

립합다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을 공격한 압디아실타를 종과 개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표현은 엘 아마르나 편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EA 67, 71, 76, 79, 104, 109, 117. 립합다는 압디아실타가 죽

고 난 후 그의 뒤를 이어 자신을 공격한 압디아실타의 자식들도 종과 개라고 비하하였다.

EA 125:40-45 압디아실타의 아들들 그 개들이 무엇인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왕의 도시들에 불을 지릅니까?

압디아실타의 아들들을 종과 개라고 부르는 것은 EA 129, 130, 134에서도 볼 수 있다. 립했다는 압디아실타와 그의 아들들을 비하하기 위해 사.가즈 또는 가즈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한다. 립했다는 사.가즈보다 가즈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는 사.가즈를 7회 사용하고 가즈(Gaz)는 31회 사용하며 하비루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sup>15)</sup> 립했다는 EA 67:17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EA 67:17 그는 이제 사.가즈 같으며, 도망친 개이고, 그는 내 주 태양의 도시 수무르(Sumur)를 점령하였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압디아실타이며, 도망친 개에서 볼 수 있듯이 사.가즈도 압디아실타의 신분을 나타내기 보다는 그에 대한 비하적인 욕설이다. 이러한 용례는 엘 아마르나 편지 91:3-5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집트 왕에게 립했다는 이렇게 말한다.

EA 91:3-5 어찌하여 당신은 게으르게 앉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가즈 그 개가 당신의 도시들을 취하게 하십니까?

여기에서 가즈는 압디아실타이며, EA 91에서 립했다는 압디아실타가

---

15) Meredith G. Kline, “The Ha-bi-ru-Kin or Foe of Israel? I,” 6-7.

자신의 소유인 도시들을 공격하여 곡식들을 약탈하여 갔다고 한다. 문제는 이 압디아실타의 신분이다. 압디아실타는 조오지 멘덴홀(George E. Mendenhall)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적 지위를 상실한 도망자이거나 힘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단순 약탈자가 아니다. 압디아실타는 시리아-레바논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물루(Amurru)의 왕이었다.<sup>16)</sup> 압디아실타는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도시 국가 왕들 중의 한 명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립합타와 구블라(비블로스)를 공격하였고, 립합타는 그런 압디아실타를 종과 개라고 비하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가즈 또는 가즈라고 불렀던 것이다.<sup>17)</sup> 그렇다면, 압디아실타는 조오지 멘덴홀과 놀만 고트왈드의 주장처럼 립합타를 공격하면서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꿈꾸며 해방 전쟁을 벌일 의도를 가졌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엘 아마르나 서신 60:6-9에서 압디아실타는 자신을 이집트 왕의 종이고 그의 집의 개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다. 그리고 압디아실타는 자신이 이집트 왕을 위해 모든 아물루를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아물루의 군주로서 압디아실타는 유사한 내용의 충성 편지 8통을 이집트 왕에게 보냈다(EA 60-67). 압디아실타의 아들 아지루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물루의 왕이 된 후 충성 편지를 썼을 뿐만 아니라(EA 156-161, 164-168) 자신의 충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서 바로를 알현하고 수 개월 동안 머물렀다(EA 169-171).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리아 북부 지역의 왕이었던 압디아실타와 그의 아들 아지루의 다른 도시 국가에 대한 공격을 해방 운동과 독립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엘 아마르나 편지의 정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16)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사.가즈의 신분도 왕족이다. Niels Peter Lemche, "Habiru, Hapiru," 7.

17) Morris Jastrow, "Egypt and Palestine, 1400 B.C.,"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 (1892): 95-124.

2) 적대적인 왕의 군사와 백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으로 사용된 사.가즈.

립합다는 압디아실타의 군사와 백성들에게도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EA 90:25에서 립합다는 압디아실타의 백성이 자신의 도시들을 공격하는 데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이집트 왕에게 다음과 같이 불평한다.

EA 90:25 당신 자신이 당신의 도시들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가즈 백성들, 개들이 그것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립합다는 압디아실타를 개라고 비하했던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개들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위의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립합다가 압디아실타의 백성들을 비하할 때 사용한 또 다른 표현은 사.가즈 또는 가즈이다. 립합다는 가즈에 백성과 군대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가즈 백성, 가즈 군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놀만 고트왈드는 사.가즈가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즈 백성을 도망자들의 그룹들로 생각했고 이들은 가나안 도시 국가에 용병으로 고용되었다고 주장한다.<sup>18)</sup> 그러나 립합다의 편지들 대부분에서 가즈 백성과 가즈 군대들은 압디아실타의 군사들과 군대들에 대한 비하적 욕설이다. EA 71:29에서 립합다는 이집트 왕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한다.

EA 71:29 그가 모든 가즈-백성을 모으지 못하게 하고 시가타(Sigata)를 취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서 가즈 백성은 누구일까? 엘 아마르나 편지 71:16-22에서 립합다가 압디아실타에게 가즈 남자라고 부르고 이어서 립합다가 그가 가즈 백성을 모았다고 말하는 것을 감안하면 가즈 백성은 당연히 압디 아

18) Norman K. Gottwald, *The Tribes of Yahweh*, 401-409.

실타의 백성들이다. 립합타의 관점에서 압디아실타는 가즈 남자이고 그의 백성은 가즈 백성인 것이다. 또한 립합타는 자신의 도시 국가들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돕지 않는 타 도시 국가들을 모두 가즈 백성들로 비하하는 표현을 쓴다. EA 130:32-42에서 립합타는 자신을 공격하는 도시 국가 왕들을 개들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백성을 가즈 백성이라고 한다.

EA 130:32-40 도시 국가 왕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우리의 성을 공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개들과 같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가즈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편지에서 립합타는 자신이 가즈 백성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립합타가 실제로 가즈 백성들의 거주 지역으로 도망가서 그 곳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sup>19)</sup> 그러나 가즈 백성들에 대한 적대감이 정점에 도달해 있는 립합타가 이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둘째는 립합타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도시 국가들을 모두 가즈 백성들이라고 비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주변 도시 국가들이 립합타의 도시 국가인 구블라에게 적대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립

---

19) Richard S. Hess, "Alalakh Studies and the Bible: Obstacle or Contribution?" in *Scripture and Other Artifacts: Essays on the Bible and Archaeology in Honor of Philip J. King*, eds. Michael D. Coogan, J. Cheryl Exum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207. Nadav Na'aman, *Canaan in the Second Millennium B.C.E*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112. Edward L. Greenstein and David Marcus, "The Akkadian Inscription of Idrimi,"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8 (1976): 59-96. 레바논에 위치해 있던 알라라크의 왕이었던 이드리미가 알렙포로 도피했다가 위협을 느끼고 암미야로 도망가며, 이곳에서 사.가즈 백성들 가운데서 7년 동안 살았다. 그리고 그는 사.가즈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이 된다. 이드리미의 말은 사.가즈의 정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드리미와 그의 백성들이 도피하여 살고 있던 가나안의 암미야의 주민들이었던 사.가즈가 강도 출신으로서 도망자 그룹이었을까? 이 사.가즈는 암미야 지역의 주민에 대한 비하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합타와 구블라가 적대적인 도시 국가들에 둘러 싸여 사면초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가즈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는 말로 립합다가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EA 130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가즈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나는”에서 “가즈 백성들”은 립합다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도시 국가 민족들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사실상 립합다는 압디아실타의 군대와 백성에 대해 그의 ‘군대’와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부분 가즈와 사.가즈라고 부르거나 이를 첨부하여 불렀다.

압디아실타의 군대와 백성을 사.가즈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도시 국가 왕들의 편지에서도 볼 수 있다. 립합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던 압디아실타는 립합타보다 먼저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아지루(Aziru)가 아물루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아지루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압디아실타처럼 립합타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도시들을 공격하였다.

EA 104:6-13 푸-바흐라(Pu.Bahla), 압디 아실타의 아들이 올랏사(Ullassa)를 점령했습니다. 알다타(Ardata), 와흐리야(Wahliya), 암피(Ampi), 시가타(Sigata)가 그들의 것입니다. 27-39 다음에 그들은 분명히 수무르(Sumur)를 취할 것입니다. 49-54 구블라(Gubla)도 사.가즈에 합병 될 것입니다.

EA 75:25-29 사.가즈가 아두나(Aduna), 일카타(Irqata)의 왕을 죽였습니다.

위의 편지에서 사.가즈가 점령하거나 죽인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왕들을 립합타의 사후에 구블라의 왕이 되었던 일리라피(Ili-rapih)는 EA 140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EA 140:5-16 아지루가 아두나(Aduna), 일카타(Irqata)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는 암미야의 왕과 알다타의 왕을 죽였습니다. 16-33 구블라만 왕의 도시입니다. 게다가 그가 수무르와 올랏사로 쳐들어 왔습니다.

일리라피의 관점에서 사.가즈가 점령한 땅은 아지루가 점령한 것이고, 사.가즈가 죽인 왕들은 아지루가 죽인 것이었다. 즉 일리라피는 이 둘을 별개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가즈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압디아실타의 아들 아지루에게만 관심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은 사.가즈 백성이 아지루의 백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 3)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사.가즈가 도망자 집단일 가능성

고트왈드와 멘덴홀은 사.가즈 또는 가즈 군사나 백성을 가나안 도시 국가의 도망한 하층민 그룹으로서 도시 국가에 반역하고 국가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엘 아마르나 편지들에 등장하는 사.가즈 백성들과 군사들이 이런 부류의 그룹들일 가능성은 없을까? 엘 아마르나 편지들 중에서 소수에서 언급된 사.가즈는 주류 사회에서 이탈한 도망자와 하층민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립합타의 편지들에 언급된 사.가즈는 이런 부류의 집단이 아니다. 물론 도망자와 하층민 그룹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립합타는 압디아실타가 시리아-레바논의 도시 국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도시 국가의 왕을 죽이고 가즈 백성들에게 합류하라고 강요했다고 한다(73:26-29; 81:11-12). 그리고 압디아실타의 충동에 따라 도시 국가 왕을 죽이고 가즈 백성들에게 합류하는 자들도 있다 (73:33; 74:21; 74:27-29; 74:34-36; 76:33-37; 77:28-29; 79:21-26). 하지만 이것은 도시 국가를 전복시키고 무질서한 도망자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제국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을 립합타가 비하적으로 표현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립합타가 자신의 농민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 하는 내용은 EA 77:37과 EA 118:34-35에서 볼 수 있다. EA 118에서 립합타는 이집트 왕에게 전쟁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식량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이 자신에게서 떠나 버릴 것을 걱정

하고 있다. 하지만 EA 118:34-35에서 립합다는 농민들의 이탈과 가즈 백성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A 118:34-35 만약 농민들이 떠나면 가즈가 도시를 취할 것입니다.

립합다는 농민들과 가즈 백성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려하는 농민들의 반란도 사회적 억압 때문이 아니다. 립합다가 농민들이 떠날 것을 두려워 하는 이유는 EA 118:22-2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으로 인한 식량 공급 중단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립합다가 보낸 다른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보았던 EA 130:32-42에서 립합다는 타 도시 국가 왕들과 백성들의 포위 공격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집트 왕이 식량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자신의 농부들이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EA 130:32-42 도시 국가 왕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우리의 성을 공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개들과 같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가즈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왕이 나를 위해 지금 아무런 식량 공급을 해 주지 않으면 나의 농부들이 나와 싸울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립합다는 반란 가능성이 있는 농부들과 가즈 백성들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압디아실타의 사.가즈 백성들을 립합다는 도망자 그룹으로 생각하였을까? 립합다의 편지들에서 이런 인식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립합다는 사.가즈 백성들을 압디아실타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압디아실타의 공격과 사.가즈의 공격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립합다의 편지들에 의하면 가즈 군사들과 가즈 백성들이 시리아-레

바논 지역 도시 국가들을 공격하였고, 많은 도시 국가들이 이들의 손에 넘어 갔으며, 도시 국가 사람들이 이들과 연합하였다. 학자들은 가즈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무정부 상태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가즈 백성들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상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압디아실타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함께 수무루 지역의 맹주였던 구블라의 왕 립합다와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립합다가 압디아실타와 가즈 군사들의 말이라고 인용한 표현들을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EA 73:26이하와 74:23 이하 그리고 EA 81:11-12에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EA 73:26-33 그가(압디아실타) 암미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의 주를 죽이라 그리고 가즈 백성들에 합류해라.”

EA 74:23-30 압디아실타가 암미야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의 지도자를 죽이라 그리하면 너는 우리처럼 되어 평화롭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설득되어 그의 메시지를 따랐고, 그리고 그들은 가즈 백성들처럼 되었다.

EA 81:11-12 그가(압디아실타) 구블라(Gubla)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의 주를 죽이라 그리고 암미야처럼 가즈 백성에 합류해라.”

엘 아마르나 74:23-30의 “우리처럼”과 “가즈 백성들처럼”은 립합다가 압디아실타와 가즈 백성들을 용병과 고용주라는 별개의 존재들이 아니라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의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말이다.<sup>20)</sup> 립합다가 반복적으로 밝히는 것처럼 압디아실타는 구블라 인근 지역의 모든 도시 국가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넣어

---

20) Moshe Greenberg, *The Hab/piru*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55), 34. EA 73:26-33과 74:23-30 그리고 81:11-12와 유사한 내용을 EA 79:18-26과 EA 79:34-47에서도 볼 수 있다.

그들의 맹주가 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끌어 모아 군대로 만들었고(EA 76:730), 립합다는 이들을 가즈 군대 또는 가즈 백성이라고 비난하였던 것이다.<sup>21)</sup> 립합다의 편지들에서 자신의 도시 국가를 공격하는 정치적 적대 세력은 항상 압디아실타였지 사.가즈 또는 가즈 백성과 군대가 아니었다.<sup>22)</sup>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도시 국가 왕들이 이집트 왕에게 보낸 엘 아마르나 서신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가즈 또는 가즈는 도망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전문적인 용병으로 활동하였던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도시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한 자들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가즈와 가즈는 시리아-레바논 지역에서 세력 확장과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적대 국가의 왕들과 백성들을 비하하고 욕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들이다.

#### 4. 가나안 지역의 사.가즈

가나안 지역에서 보낸 엘 아마르나 편지들에서도 사.가즈라는 표현이

21) Meredith G. Kline, "The Ha-bi-ru - Kin or Foe of Israel II,"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9 (1957): 170-184.

22) 립합다를 비롯하여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도시 국가 왕들이 보낸 편지들에서 사.가즈 또는 가즈가 기록된 곳은 다음과 같다.

67:17; 68:13, 14-18; 71:20-22, 29; 73:26-29, 33; 74:14, 21, 27-29, 34-36; 75:10; 76:18, 33-37; 77:24, 28-29; 79:8-12, 21-26; 81:11-12; 82:9-13; 83:17-18; 85:39-41, 75-79; 87:19-22; 88:29-34; 89:24, 31-32; 90:25; 91:3-5, 23-24; 104:51-54; 108:62-63; 111:17-21; 112:43-47; 116:37-42; 117:56-58; 123:13-16; 127:7-8, 20-21; 129:86-90; 130:36-42; 132:10-21; 144:24-26; 148:41-43; 169:29-32; 179:20-22; 185:9-15, 44-51; 186:13-20; 189:10-11, 18-19; 195:24-32; 197:10-11, 26-30; 215:9-15.

이 중에서 아몰루의 왕이었던 압디아실타와 그의 아들 아지루의 군대와 백성과 무관해 보이는 사.가즈는 EA 195:24-32; 215:9-15에 등장하는 사.가즈들이다. 144:24-26; 148:41-43; 185:9-15, 44-51; 186:13-20의 사.가즈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전후 문맥과 Etakkama가 보낸 편지를 참고하면 압디아실타의 아들 아지루와 관련되어 있다. EA 112:43-47은 립합다가 사.가즈를 돈을 주고 매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가 압디아실타의 사람을 매수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원적 의미의 사.가즈를 매수했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 사용 횟수는 시리아-레바논 지역보다 현저하게 적으며, 모두 15개의 서신에서 사용되었다. 시리아-레바논 지역에서는 주로 립합다가 가즈 사람, 가즈 백성, 또는 가즈 군사들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였다.<sup>23)</sup> 반면에 가나안 지역에서는 가즈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항상 사.가즈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압디헤바는 사.가즈를 사용하지 않고 아피루(Apiru) 또는 하비루(Habiru)만 사용한다. 하지만 남부 가나안 지역에서 사용된 사.가즈와 하비루도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경우처럼 대부분 비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1) 용병으로 활동한 사.가즈

시리아-레바논 지역과 가나안 지역에서 보낸 엘 아마르나 편지들에 사용된 사.가즈 중에는 매우 드물지만 용병으로 활동한 사람들을 지칭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가즈의 존재는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였던 다메섹의 지도자 비르야와자 (Biryawaza)의 병력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메섹의 비르야와자 (Biryawaza)는 아마도 히타이트나 라바유의 두 아들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동 준비를 갖춘 채 이집트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가즈와 수투 사람(Sutean)을 자신의 병력의 일부로 언급하고 있다(EA 195:24-32).<sup>24)</sup>

EA 195: 24-32 나는 진실로 나의 군대들과 병거들과 함께, 나의 형제들, 나의 사.가즈 그리고 나의 수투 사람들과 함께 궁수들의 작전에 참여하면서 어디든지 왕, 나의 주께서 명령하는 곳에 가려 했습니다.

23) 아물루 사람들을 사.가즈로 표현하는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편지들은 다음과 같다: EA 144:24-26; 148:41-43; 185:9-15, 44-51; 186:13-20; 189:10-11, 18-19; 195:24-32; 197:10-11, 26-30; 215:9-15.  
 24) 수투 민족의 살인과 납치에 관한 언급은 EA 122:34; 123:14에서 볼 수 있으며, EA 169에서는 이들의 용병 활동을 볼 수 있다. EA 169에 의하면 압디 아실타의 아들 아지루가 이집트에 장기 억류되어 있게 되자 수투 용병들이 아지루의 아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가즈는 수투 사람들과 함께 비르야와자의 용병의 일부로 활동하고 있다. 가나안 지역에서 보내진 엘 아마르나 편지들에서도 용병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다. 므깃도의 왕이었던 비리디아(Biridiya)는 세겜 왕 라바유(Labayu)의 두 아들이 사.가즈와 수투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그와 전쟁을 치루게 하였다고 한다.

EA 246: 뒷면 1-11 라바유의 두 아들이 정말로 그들의 돈을 사.가즈와 수투 인들에게 주어 나와 전쟁을 벌이게 하였습시다. 왕은 종을 생각하여 주소서.

라바유의 두 아들이 사.가즈에게 돈을 주어 전쟁에 참여하게 한 것은 그들이 사.가즈를 용병으로 고용하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사.가즈가 강도와 도망자 출신이었던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시리아-레바논 지역에서 보낸 편지인 EA 318에서 다간타칼라(Dagantakala)가 이집트 왕에게 자신을 강력한 대적들로부터 구해 달라고 하면서 그 대적들을 사.가즈와 강도들과 수투 사람들이라고 한다.

EA 318:10-14 나를 강력한 대적들 곧 사.가즈, 강도들 그리고 수투 족들의 손에서 구원 하소서

다간타칼라는 사.가즈를 적대적 세력으로 말하면서 강도들과는 구분 짓고 있으며, 강도들과 수투 족들보다 앞에 언급함으로써 사.가즈의 규모가 강도들보다도 적은 소규모의 집단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sup>25)</sup> 이처럼 엘 아마르나 편지들에서 나오는 일부 사.가즈가 용병으로 활동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들이 도망자나 하층민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엘

---

25) Anson F. Rainey, *The El-Amarna Correspondence: A New Edition of the Cuneiform Letters from the Site of El-Amarna Based on Collations of All Extant Tablets* (Leiden: Brill, 2014) 1613.

아마르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반면에 대다수의 아마르나 문서에 언급된 사.가즈는 적대적 세력에 대한 비하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 2) 개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들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가즈 또는 사.가즈는 대부분 아몰루 지역의 압디아실타의 백성들과 군사들을 비하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가나안 지역의 사.가즈도 비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도시 국가 왕들처럼 가나안 남부 지역 도시 국가 왕들도 자신을 이집트 왕 앞에서 낮추기 위해 종과 개를 자주 사용한다. EA 321에서 아스카론(Asqalon) 왕 위디아(Widi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A 321:1-5 나의 주, 나의 신, 나의 태양, 하늘에서 온 태양인 왕에게 아스칼루나의 통치자이고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발에 먼지이고 당신의 말들의 마부인 이디아의 메시지

도시 국가 왕들은 이집트 왕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개라고 낮추어 표현 하였다.<sup>26)</sup> 바산 지역의 도시 국가 왕이었던 알테만야(Artemany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A 201:9-16 당신이 나에게 궁수들이 도착하기 전에 준비하라고 편지했을 때 단순히 개에 지나지 않는 내가 누구이기에 가지 않겠습니까?

도시 국가 왕들은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도시 국가 왕들을 비하

---

26) 자신을 개로 낮추는 표현은 EA 202:7-14; 247:14-21; 314:11-16; 315:13-18; 316:10-15; 316:10-15; 319:15-23; 320:22-25; 322:15-19; 323:17-23; 324:16-19; 378:14-26에서도 볼 수 있다.

할 때에도 개라고 표현하였다. 게젤 왕이었던 앗두다니(Addudani)와 킬투(Qiltu)왕 수와르다타 (Suwardat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A 295:15-22 사악한 일이 일어났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 개, oo의 지도자와 함께, 그의 형제들과 함께, oo의 땅의 사람들을 그는 함께 모았습니다.

EA 281:18-26 이 자들은 개들이며,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대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더해 하비루도 비하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예루살렘 왕 압디헤바(Abdi-Heba)는 이집트 왕에게 자신이 하비루(Hapiru)처럼 취급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EA 288: 28-33 모든 도시 국가 지도자들은 평화롭게 지내지만 나는 전쟁 중입니다. 나는 하비루(Hapiru)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압디헤바는 사.가즈를 사용하지 않고 하비루를 사용하였는데, 그는 이 표현을 자신이 강도나 반역자 취급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하기 보다는 자신이 다른 도시 국가 왕들로부터 적대적 인물로 취급 받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 비하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압디헤바는 하비루를 자신에 대한 비하적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고, 아래의 3.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적대적 세력에 대한 비하적 표현으로도 사용한다.

### 3) 가나안 지역의 적대적 세력에 대한 비하적 표현

가나안 지역의 편지들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사.가즈는 어원처럼 강도나 도망친 하층민들의 그룹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EA 288:41-47에는 “하비루에 연합한 종들”이라는 표현이 있다. EA 288:41-47에서 압디헤바는 하비루에 연합한 종들이 라키수(Lakisu 현

대의 라기쉬)의 짐렛다(Zimredda)를 치고 압티합다(Yaptih-Hadda)를 실루(Silu) 성문에서 죽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종들을 도망한 노예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엘 아마르나 서신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종들은 압디헤바를 비롯한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아니고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왕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엘 아마르나 서신에서 종이라는 표현은 흔히 도시 국가 왕들 자신을 이집트 왕 앞에서 낮추어 표현할 때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도시 국가 왕들을 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sup>27)</sup> 이런 용례는 EA 288에서 압디헤바 자신이 이집트 왕에게 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EA 288: 1-4 나의 주 나의 태양인 왕에게 말하소서: 당신의 종 압디헤바의 메시지. 나는 나의 주 왕의 발 앞에 일곱 번씩 일곱 번씩 엎드리나이다.

사.가즈를 도망자 그룹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의 면면 때문이다. 엘 아마르나 편지들에 의하면 가나안 남부 도시 국가의 왕들과 이들의 친족들이 사.가즈에 합류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예루살렘 왕 압디 헤바가 이집트 왕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밀킬루(Milkilu), 수아르다투(Suardatu), 긴티(Ginti), 라바유(Labayu)와 같은 도시 국가의 왕들이 하비루에게 합류하였고, 라바유의 아들들과 그리고 아르사와(Arsawa)의 아들들이 하비루에 참여하였거나 하비루에게 도시 국가들을 넘겨 주었다고 말한다(EA 289, 290). 가즈루(Gazru)의 지배자였던 야파후(Yapahu)는 자신의 동생이 사.가즈와 동맹을 맺고 자신의 대적이 되었다고 한다(EA 298). 엘 아마르나 문서의 사.가즈를 어원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엘 아마르나 편지들은 왕들과 그들의 친족들이 사.가즈에 합류했다는 말을 하지만, 일반 평

27) Norma K. Gottwald, *The Tribes of Yahweh*, 405.

민들이나 하층민들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왕의 신하들 중에서 사.가즈에 합류했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는다.<sup>28)</sup> 이러한 현상은 사.가즈가 하층민과 강도나 도망자 집단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사.가즈가 가나안 도시 국가의 도망자 그룹들이 아니라는 것은 이들의 규모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게젤 왕 야파후(Yapahu)는 사.가즈가 자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도움을 베풀어 주어야 된다고 한다(EA 299). 이런 분위기는 수반두(Subandu)의 메시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EA 305, 307). 수와르다타(Suwardata)는 EA 366에서 사.가즈와 별이고 있는 전투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수와르다타에 의하면 예루살렘 왕 압디헤바와 악카(Akka, 현대의 악코 Acco) 왕 수라타(Surata) 그리고 악사파(Aksapa, 악코 인근 도시)의 왕 엔다루타(Endaruta)가 병거 50대를 가지고 도우러 왔다고 말한다.<sup>29)</sup> 그리고 수와르다타는 이집트 왕에게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파견된 이집트 왕의 주둔군 책임자인 안하무(Yanhamu)를 보내어 함께 전쟁을 치르게 해 달라고 한다.<sup>30)</sup> 모두 4명의 도시 국가 왕들과 이집트 주둔군이 함께 싸워야 될 정도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사.가즈 또는 하비루의 세력은 대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규모 세력이었던 이유는 사.가즈들이 도시 국가들의 상호 동맹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 싸우면서 적대적인 동맹 도시 국가들을 사.가즈라고 비하하였다.

가나안 도시 국가 왕들이 사용하는 사.가즈와 하비루가 대부분 자신들의 정치적 적대 세력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었다는 것은 왕들이 사.가즈라고 부르는 대상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영토 전쟁은 라바유로부터 시작되었다. 라바유와 그의 두 아들

28) Nadav Naaman, "David's Sojourn in Keilah in Light of the Amarna Letters," *Vetus Testamentum* 60 (2010): 87-97.

29) 악사파는 악코 인근의 작은 도시이다. Niels Peter Lemche, *The Canaanites and Their Land: The Tradition of the Canaanit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35.

30) 안하무(Yanhamu)는 립헷다의 편지를 비롯하여 엘 아마르나 서신 27개에서 언급된 인물이다.

은 므깃도의 비리디아(Biridija)를 공격하였고, 비리디아는 이들을 향해 사.가즈라고 불렀다(243, 244, 246). EA 254에서 라바유는 밀킬루(Milkilu)를 자신을 공격한 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라바유와 그의 두 아들은 밀킬루와 동맹을 맺었고(EA 250, 287), 이들은 다시 수와르다타와 동맹을 맺는다. 수와르다타는 라바유에 의해 공격을 당하였던 적이 있으며, 이 때까지는 압디헤바와 동맹 관계에 있었다(EA 366). 하지만 라바유가 사망하자 수와르다타는 예루살렘의 압디헤바의 공격을 받게 된다(EA 280). 그래서 수와르다타는 압디헤바를 또 다른 라바유라고 말한다(EA 280). 결과적으로 수와르다타는 밀킬루와 동맹을 맺었고, 밀킬루는 자신과 수와르다타에 대한 극심한 전쟁을 언급하며 이집트 왕에게 자신들을 사.가즈로부터 구해 달라고 말한다. 이 사.가즈는 압디헤바이다(EA 280). 이로서 가나안 도시 국가들 중에는 라바유와 그의 아들들, 밀킬루, 수와르다타가 주축이 된 동맹군이 형성되며, 이들에 대항한 동맹 세력은 예루살렘 왕 압디헤바를 중심으로 한 아스칼루나(Asqaluna)와 라키쉬(Lakisi)와 같은 도시 국가 왕들이었다(EA 287).<sup>31)</sup> 이들이 서로의 군대를 향해 사.가즈라고 부르거나 하비루라고 불렀던 결정적인 단서는 압디헤바의 편지 EA 2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A 290:5-30 밀킬루와 수와르다타가 그 땅에 대항하여 행한 행동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가즈루에서 군대를, 김투에서 군대를, 그리고 킬투에서 군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루부투를 점령하였습니다. 왕의 땅이 하비루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외에도 예루살렘에 속한 소읍이고 왕의 도시인 비트닌,우르타라는 이름을 가진 소읍이 킬투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만약 궁수가 없으면 왕의 땅은 하비루에게 버려질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항한 이 행위는 밀킬루의 명령과 수와르다타와 긴티가 함께 내린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31) Edward F. Campbell, "Amarna Letters and the Amarna Period," 20; Nadav Na'aman, "David's Sojourn in Keilah in Light of the Amarna Letters," *Vetus Testamentum* 60 (2010): 87-97.

첫 세 문장에서 압디헤바는 루부투를 밀킬루 동맹 세력들이 점령했다고 했는데, 이어서 그 땅을 “하비루에게 버려졌다”고 한다. 이 말은 압디헤바가 밀키루와 수와르다타 그리고 김투의 군대들을 하비루로 여기고 호칭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넷째 문장에서 비트닌,우르타(Bit-nin, URTA)가 킬투(Qiltu) 사람에게 넘어 갔다고 하며, 이것은 킬투의 군주였던 수와르다타에게 넘어갔다는 말이다. 이렇게 진술한 후 압디헤바는 왕의 땅이 하비루에게 넘어 갈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압디헤바가 수와르다타와 그의 군대인 킬투를 하비루로 취급하였음을 보여준다. “왕의 땅이 하비루에게 버려질 것이다”는 말은 그에게 정치적 적대 세력들인 밀킬루와 수와르다타의 손에 넘어간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압디헤바는 밀킬루와 수와르다타와 긴티를 하비루라고 불렀지만, 밀킬루의 동맹 세력은 압디헤바를 사.가즈라고 불렀다. EA 288에서 압디헤바는 자신이 하비루 취급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처럼 밀킬루와 수와르다타는 그를 사.가즈라고 불렀다. EA 280에서 수와르다타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압디헤바의 행동을 이집트 왕에게 불평한다.

EA 280:16-24 왜 압디헤바가 켈투 사람들에게 “은을 받고 나를 따르라”고 편지 했을까요? 이에 더해 내 주 왕은 심문하소서. 만약 내가 그로부터 사람이나 수소나 나귀를 취했다면 그러면 그가 옳습니다. 우리 소읍들을 취하곤 했던 라바유가 죽자 지금은 또 다른 라바유가 압디헤바이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소읍을 취하고 있습니다.

압디아실타가 했던 것처럼 압디헤바가 보낸 밀서 때문에 수와르다타의 백성들은 압디헤바에게 동조하였고, 이런 압디헤바에 대해 EA 271에서 밀킬루는 자신과 수와르다타가 사.가즈와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하며 사.가즈로부터 구해 주고 자신의 종들에게 죽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이

집트 왕에게 하소연 한다.<sup>32)</sup> 이런 현상을 고려할 때 가나안 지역에서 보낸 편지들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가즈와 하비루는 가나안 도시 국가 왕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적대 세력들인 타 도시 국가 왕들과 그들의 동맹 세력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sup>33)</sup>

## 5. 나오는 말

많은 학자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히브리인과 엘 아마르나 편지들에 나오는 사.가즈와 하비루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 왔다. 엘 아마르나 편지들의 하비루와 사.가즈를 구약 성경의 히브리인과 동일시하는 학자들은 둘로 나눌 수 있으며, 한 쪽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또 다른 한 쪽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부정하고 이스라엘의 기원을 가나안 도시 국가의 하층민들과 주류 사회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주장한다. 이 두 주장은 사.가즈와 하비루의 어원에 근거하며 엘 아마르나 편지들을 전후 문맥에서 이해하지 못했다. 엘 아마르나 편지의 사.가즈로 표현된 대상들 중에서 매우 소수가 사회적 소외 그룹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적 적대 세력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시리아-레바논 지역의 사.가즈는 아물루 지역의 도시 국가 왕이었

---

32) 이 편지에서 밀킬루는 사.가즈와 자신을 죽일 가능성이 있는 자신의 종들과 구분하고 있다.

33) 남부 가나안 지역에서 보낸 엘 아마르나 편지들 중에서 사.가즈나 하비루가 사용된 편지들은 다음과 같다.

243:19-21; 246:5-10; 254:31-37; 271:13-16; 272:14-17; 273:12-14, 18-24; 286:18-20, 56; 287:30-31; 288:37-38, 43-44; 289:23-24; 290:12-13, 17-21; 298:20-27; 299:17-24; 305:22; 307:8-9; 318:10-14.

이들 중에서 EA 298, 299, 305, 307에서 언급된 사.가즈들은 그 정체를 가능하기 매우 어렵다. EA 298과 299는 게젤 왕 야파후(Yapahu)의 것이며 EA 305와 307를 쓴 왕은 수반두(Subandu)이지만 어느 지역의 왕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게젤 왕들의 편지들에 있는 사.가즈는 게젤 왕이었던 아비 밀키가 예루살렘 왕 압디 헤바와 그의 세력들을 사.가즈라고 비하했던 것과 같은 차원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던 압디아실타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으로서 주로 구블라의 립헷다가 사용하였다. 가나안 지역에서 보낸 아마르나 편지들에서 사.가즈도 대부분 정치적 적대 인물들과 세력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었다. 하비루는 예루살렘 왕 압디 헤바가 사용하였으며, 이 표현도 그의 정치적 적대 세력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다. 압디 헤바가 다른 도시 국가 왕들과는 달리 사.가즈가 아닌 하비루를 사용한 이유는 엘 아마르나 편지를 통해서 전혀 알 수 없다. 이 하비루가 성경의 히브리인과 동일한 표현일지라도 압디 헤바는 그의 적들인 도시 국가 왕들과 그들의 백성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이다.<sup>34)</sup> 그러므로 엘 아마르나의 사.가즈와 하비루는 가나안 정복과 전혀 상관없다. 엘 아마르나의 대부분의 사.가즈와 하비루는 결코 억압받는 소외 계층이거나 독립적 지위를 얻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욕망에 이끌려 전쟁을 벌였던 도시 국가 왕들이 서로에 대해 내뱉은 비하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우리의 선조들이 과거 만주와 중국에 살았던 민족들을 ‘오랑캐’라고 부르며 폭력적인 사람을 ‘오랑캐 같은 놈’이라고 불렀던 것과 유사하다.

## 6. 참고 문헌

김성, “첫 번째 “역사적” 출애굽: 출애굽의 연대 추정과 희소스 추방.” 『구약 논단』 제 1집 (1995년 9월): 27-55.

김영진, “구약성서 연구에 있어서 고대 근동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 9집 (2000년 10월): 259-288.

김지찬, “한국교회 설교의 근본적 문제점: QT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성

34) Meredith G. Kline, “The Ha-Bi-Ru - Kin or Foe of Israel? III”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20 (1958): 46-70.

- 경 해석의 심리화-사회화와 적용의 정형화.” 『성경과 신학』 67권 (2013): 261-290.
- 정중호, “구약의 노비관과 조선 초기 천민사상.” 『구약논단』 제 19권 2호 통권 제 48집 (2013년 6월): 167-194.
- Barton, George Aaron, “The Habiri of the El-Amarna Tablets and the Hebrew Conquest of Palestin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48 (1929): 144-148.
- Beitzel, B. J. “Habiru,”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2, ed.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82.
- Brueggemann, Walter, “Exodu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 ed. Leander E. Keck, Nashville: Abingdon, 1994.
- Brueggemann, Walter, “The Tribes of Yahweh: An Essay Review.”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8 (1980): 441-451.
- Brueggemann, Walter, “Trajectories in Old Testament Literature and the Sociology of Ancient Israel.” *JBL* 98 (1979): 161-185.
- Butler, Trent C. *Joshua 1-12*. Grand Rapids: Zondervan, 2014.
- Campbell, E. F. “The Amarna Letters and the Amarna Period” *Biblical Archaeologist* 23 (1960): 2-22.
- Gottwald, Norman K. “Two Models for the Origins of Ancient Israel: Social Revolution or Frontier Development,” in *The Quest for the Kingdom of God: Studies in Honor of George E. Mendenhall*, eds. H.B. Huffmon/ F. A. Spina/ A. R. W. Green.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 Gottwald, Norman K. *The Tribes of Yahweh: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Israel, 1250-1050 B.C.E.* Maryknoll, N.Y.: Orbis Books,

- 1979.
- Gray, Mary P. "The Habiru-Hebrew Problem in the light of the Source Material Available at Present." *Hebrew Union College Annual* 29 (1958): 139-140.
- Greenberg, Moshe. *The Hab/piru*.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55.
- Greenstein, Edward L. / David Marcus. "The Akkadian Inscription of Idrimi."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8 (1976): 59-96.
- Hess, Richard S. "Alalakh Studies and the Bible: Obstacle or Contribution?" in *Scripture and Other Artifacts: Essays on the Bible and Archaeology in Honor of Philip J. King*. eds. Michael D. Coogan, J. Cheryl Exum,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 Horne, Charles F. *The Tel El Amarna Letters: 1400 B.C.* Baltimore: Kessinger Publishing, 2010.
- Hubbard, Robert L. *Joshua*. Grand Rapids: Zondervan, 2009.
- Jastrow, Morris. "Egypt and Palestine, 1400 B.C."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 (1892): 95-124.
- Kline, Meredith G. "Ha-bi-ru: Kin or Foe of Israel 1."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9 (1956): 1-24.
- Kline, Meredith G. "Ha-bi-ru - Kin or Foe of Israel II."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9 (1957): 170-184.
- Kline, Meredith G. "Ha-Bi-Ru - Kin or Foe of Israel? III"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20 (1958): 46-70.
- LaGrand, James. "Hebrews in the Tanak." *Proceedings* 11 (1911): 1-8.
- Lemche, Niels Peter. "Habiru, Hapiru." i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 Lemche, Niels Peter. *The Canaanites and Their Land: The Tradition of*

- the Canaanit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McConville, J. Gordon/ Stephen N. Williams, *Joshua*. Grand Rapids: Eerdmans, 2010.
- Mendenhall, George E. *The Tenth Generation: The Origins of the Biblical Tradi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 Merrill, Eugene H. *Kingdom of Priests: A History of Old Testament Israel*.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 Moran, William L.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 Na'aman, Nadav. "David's Sojourn in Keilah in Light of the Amarna Letters." *Vetus Testamentum* 60 (2010): 87-97.
- Na'aman, Nadav. *Canaan in the Second Millennium B.C.E.*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 Naaman, Nadav. "Habiru and Hebrews: The Transfer of a Social Term to the Literary Sphere." *JNES* 45 (1986): 271-288.
- Pritchard, James B.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Rainey, Anson F. "Shasu or Habiru: Who were the Early Israelites." *Biblical Archaeology Review* 34 (2008): 51-55.
- Rainey, Anson F. *The El-Amarna Correspondence: A New Edition of the Cuneiform Letters from the Site of El-Amarna Based on Collations of All Extant Tablets*. Leiden: Brill, 2014.
- West, Stuart A. "The Habiru and the Hebrews: From a Social Class to an Ethnic Group." *Dor le Dor* 7 (1979): 101-107.
- Winckler, Hugo. *Geschichte Israels in Einzeldarstellungen*. Leipzig: Pfeiffer, 1895.

검색어

하비루

사.가즈

엘 아마르나

가나안

시리아-레바논

## Reconsideration on the Habiru in the El Amarna Letters

Dongyoun Ki, Ph.D

Professor, Department of Old Testament

Korea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identity of the Habiru in the El Amarna letters in its context. When the El Amarna letters were discovered in 1877, the theory of the conquest of Joshua and the Israelites was significantly affected. In the early stage of the study of the El Amarna letters, scholars identified the Habiru/Sa.Gaz of El Amarna as Biblical Hebrews and regarded them as a support for Joshua's conquest of Canaan. However, ever since Benno Landsberger suggested that Habirus were fugitives, many scholars have regarded the Habiru of El Amarna as an outcast group formed by the lower social class. They then have used this new interpretation to explain a completely different theory of the origin of the Israelites from the Canaan conquest. They have defined the Habiru as

www.kci.go.kr

people who escaped from the control of the ruling class and lived as social outcasts in the form of robbers or killers who threatened the ruling class. However, the Habiru in the El Amarna letters do not give any information about the origin of Israel in Canaan. Whether the scholars use the Habiru for the theory of the Canaan conquest or for an explanation of a social phenomenon, their arguments are founded on their lack of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text and also on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ontext in the El Amarna letters regarding the Habiru.

Even though scholars regard Habiru with Sa.Gaz, the El Amarna letters mostly use Sa.Gaz, whereas they use Habiru only 9 times. The word ‘Sa. Gaz’ in the El Amarna letters may have been used, in some cases, to refer to alienated social groups, but it was used, in most cases, as a derogatory expression against the political enemies of the kings of the city states. The word ‘Habiru’ was used only by Abdi-Heba, king of Jerusalem, and it was also a disparaging expression against his political enemies. It cannot be understood through the content of the El Amarna letters why Abdi-Heba used the expression ‘Habiru,’ whereas none of the other kings of the city states did not. Even if there is a chance that the ‘Habiru’ in the El Amarna letters indicates the Biblical Hebrews, Abdi-Heba used it only to belittle the hostile kings of the city states and their people who were his political enemies. Therefore, the expressions ‘Sa.Gaz’ and ‘Habiru’ in the El Amarna letters are unrelated to the Canaan conquest theory, and they do not indicate the socially oppressed lower class who sought independence from the ruling class. The expressions were only used by the kings of the city states to disparage each other as they waged endless wars out of greed to expand their power and land.

## Keywords

Habiru

Sa.Gaz

El Amarna

Canaan

Syria-Lebanon

- 투고일: 2015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5년 10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06일

[www.kci.go.kr](http://www.kci.go.kr)